

지역 소식통

고창군농기센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평가회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가 지난 11일 고창제리연 구회(대표 윤병선)를 대상으로 추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사업 평가회'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추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업인들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장비, 안전보조구, 전문가 컨설팅,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 위, 농약안전보관함 등 안전 보호장비 2종을 지원했다. 또 5차례에 걸친 안전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안전교육, 안전장비 전시 등 안전의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식육판매업소 거래내역서 제작 큰 호응

부안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판매 영업장 관리제고를 위해 식육 거래내역서를 손수 제작하여 전 업소에 직접 배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에는 식육거래내역서뿐만 아니라 자체위생관리 기준점검표, 위생교육 실시기록부와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과 업소 관리기준, 파태료 부과 기준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책자 겉표지에 부안을 상징하는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과 2023년 챔버리 마크도 삽입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권오범 부안군 축산유통과장은 "축산물 식육판매업소 식육 거래내역서 발간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역사적 · 예술적 소장품 수집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음악 관련 작품 기증 신청 · 접수

정읍시가 신청중에 소재한 정촌가요특구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 소장품 수집에 나선다.



시는 한국과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양질의 음악 관련 작품을 수집해 음악 문화의 전승과 보존에 이바지하고, 정촌가요특구 전시관 소장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장품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의 발원지 정촌가요특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읍시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소장품 접수 기간은 6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수집 대상은 CD, LP, DVD, 테이프 등 고전 가요부터 현대 대중음악까지 모든 장르의 음반과 축음기, 플레이더, 악기 등의 음악 기기다.

또 정읍시와 내장산 동화 등 지역의 역사 또는 지명과 관련된 음악 자료나 정읍 출신 가수의 음악 자료도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증신청서와 소장내역서를 작성해

정읍시청 관광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집한 작품은 연구와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대규모 기증자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하거나 특별전시회를 열어 기부와 나눔의 고귀한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정읍시청 관광과(063-539-519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집은 한국과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양질의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촌가요특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시행

경제정책 기초자료 활용

정읍시가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로 44회째인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조사로 매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에서는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 모든 사업체로 2021년 중 1개월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사업체 117개소다.

조사 결과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소재지,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수입액, 연간 제품별 출하액·재고액, 유형자산(사업체) 등 총 13개 항목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과 응답자 편이에 맞는 인터넷, 이메일, 팩스, 전화 등 비대면 조사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가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사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각종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통계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조사 결과는 2023년 1월 이후 확정에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공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통계조사 종합상황실(☎063-539-5406~7, 539-687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온통(On通) 건강 드림 교실' 마무리

정읍시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2022 온통(On通) 건강 드림 교실'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내 다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건강관리사업의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간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온통(On通) 건강 드림 교실'은 지난 3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체중조절 희망자와

만성질환 유증상자 등 지역 내 거주하는 성인 4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신청자별 사전검사(인바디 측정, 1:1 맞춤형 운동처방 및 영양 상담 등)와 주 1회 한방진료(침 요법, 상담 등), 주 2회 전신 순환 체조, 스트레칭 해소와 정서 안정을 위한 공예 교실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화상교육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 강사의 실시간 운동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자들의 평

균 비만도는 0.34kg/m² 감소하고, 체지방률은 0.72kg/m²가 감소했다. 반면, 근육량은 0.13kg이 증가해 참여자들의 건강생활실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간적 제약이 많은 직장인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력을 얻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15일 오전 11시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2022년 2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평화의 한반도 건설 방안 모색'

민주평통자문회 부안군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15일 오전 11시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2022년 2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건의 의견수렴 △2022년도 하반기 협의회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영식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군민이 다함

게 평화와 통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활발하게 평화의 전도사로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통일은 미래대 라는 열린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통일시책을 자문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하며, "더욱 굳건하게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을 결집시켜 가자"고 말했다.

이날 2분기 정기회의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추진과제 및 평화통일을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었다.

/부안=김성진 기자

정읍시, 신규 주민등록증 '원스톱 해결' 나서

정읍시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바로 뛰는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가 도래한 지역 내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대다수가 학생이 있는 고등학교로 평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발급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 기한이 경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발급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지장 받지 않도록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구성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부담 공무원이 다시 학교를 방문해 교부까지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해비 성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시책을 발굴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